



고훈을 주는 나무 우화

글 | 신현배
시인 · 아동문학가

[무화과나무와 게으름뱅이]

옛날 라우스의 어느 왕국에 지독하게 게으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까지 일다운 일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해야 무화과나무 아래에 누워, 열매가 입을 으르 떼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집도 없었습니다. 시냇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아래가 그가 밤낮없이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열매 하나가 넷뭉클 떨어졌습니다. 열매는 물 위에 둥둥 떠서 아래쪽으로 떠내려갔습니다.

넷뭉클은 궁전 앞을 지나 강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임금의 조카딸이 시냇가에 나왔다가 떠내려 오는 열매를 보았습니다.

“어머나! 먹음직스러운 무화과나무 열매네.”
임금의 조카딸은 열매를 건져내어 맛을 보았습니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만큼

맛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과일은 처음이야. 나는 이 과일이 열린 무화과나무 주인과 꼭 결혼할 테야. 그러면 평생 맛있는 과일을 싹껏 먹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

임금의 조카딸은 자신의 뜻을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무화과나무의 주인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봐라, 전국 뽕방곡곡에 뽕을 붙여, 무화과나무 주인들은 그 열매를 궁전으로 보내라고 하라.”

임금의 명령에 따라 궁전 창고에는 전국에서 보내온 무화과나무 열매들이 쌓였습니다.

임금의 조카딸은 그 열매들을 일일이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먹은 그 무화과나무 열매보다는 맛이 덜했습니다.

임금은 열매를 보내지 않은 무화과나무 주인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게으름뱅이가 열매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의 조카딸은 게으름뱅이를 찾아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서 먹어 보았습니다. 시냇가에 서 먹었던 그 열매 맛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인근의 조카딸은 무한라나무 주인인 게으름뱅이와 결혼했습니다.

인근은 조카딸의 신랑이 천하의 게으름뱅이여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카딸에게는 돈 한 푼 주지 않고 궁전에서 쫓아 버렸습니다.

조카딸은 게으름뱅이와 무한라나무 아래에 살아도 매우 행복했습니다. 맛 좋은 열매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한라나무에 더 이상 열매가 여리지 않자, 게으름뱅이의 아내가 알아누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병을 낫게 하려면 내가 일을 해야 해.’

게으름뱅이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 무한라나무 숲을 가꾸었습니다. 그러자 아내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인근은 이 소식을 듣고 조카딸 내뺌을 궁전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재산을 떼어 주고 궁전에서 살게 해 주었습니다.

[젊은 버드나무와 늙은 버드나무]

몽골의 어느 강가에 두 그루의 버드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젊은 버드나무와 늙은 버드나무였습니다.

젊은 버드나무는 늘 고개를 꼴꼴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나뭇잎에 윤기가 흐르고 걸모습이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버드나무를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잘생긴 버드나무가 세상에 또 있을까? 걸어 훌륭하니 속이 잘 여물었을 거야.”

젊은 버드나무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거렸습니다.

‘혜혜, 사람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는군. 내가 봐도 나는 너무 잘생겼어.’

젊은 버드나무는 강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려 늙은 버드나무를 보았습니다. 고개를 꼭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젊은 버드나무는 딱하다는 듯 혀를 꼬꼼 차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도 참, 무슨 처를 지었다고 언제나 고개를 꼭 숙이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살아야지요.”

늙은 버드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대, 자네처럼 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게. 자네는 너무 걸치장에 열을 욕리고 있어. 그러다가는 속이 여물지 않고 비어 있게 된대네.”

그러나 젊은 버드나무는 늙은 버드나무의 충고를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뿌리에서 얻은 양분을 모두 걸모양을 내는 데 써 버릴 뿐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버드나무 주인이 도끼를 가지고 강가로 왔습니다.

‘집을 새로 지어야 하니 나무를 베어야겠다.’

주인은 도끼를 들어 두 그루의 버드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리고는 버드나무의 떨동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으음, 늙은 버드나무는 속이 짝 차있는걸. 대들보로 써도 되겠어.”

주인은 흐릿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엾이자, 이 버드나무는 보기와는 다르네. 걸모습이 훌륭해서 대들보로 쓰려고 했더니 속이 텅텅 비어 있는 걸.”

주인은 젊은 버드나무의 떨동을 보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뒤 늙은 버드나무는 집을 짓는 데 대들보

로 쓰였지만, 젊은 버드나무는 잘게 쪼개져 작작으로나 쓰였답니다.

[정원사와 늙은 배나무]

프랑스 어느 저택의 정원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이 배나무는 봄에 흰 꽃을 피우고, 가을에 달고 맛있는 배를 가지마다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배나무도 나이를 먹자 역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인정이 전혀 없는 정원사는 배나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배나무를 베어 버려야겠어. 배가 열리지 않으니, 이제 쓸모가 없어졌잖아.'

이튿날 아침, 정원사는 도끼를 챙겨 들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도끼로 배나무를 찍었습니다.

늙은 배나무는 신음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정원사님, 제가 그동안 달고 맛있는 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그 공을 생각해서 저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 살아 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정원사는 고개를 가른저었습니다.

"나는 라거보다 지금이 중요해. 역매도 열리지 않는 나무, 베어서 목재로나 써야지."

정원사는 다시 도끼질을 하려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바쁜 그때, 나이팅게일 수백 마리가 날아와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견주세요! 우리한테도 소중한 나무예요. 당신 부인은 여쭙에 이 나무 그늘 아래서 더위를 식혔지요. 그때 우리는 부인을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었어요."

그러나 정원사는 나이팅게일이 말려도 듣지 않았습니다. 도끼로 배나무를 또 찍었습니다. 그러자 나무줄기 속에서 꿀벌이 떼 지어 몰려



나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끼질을 그만두세요! 당신을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어요. 만약에 이 나무를 베지 않겠다면 우리는 당신에게 날마다 꿀을 주겠어요. 이 꿀을 장에 내다 팔면 당신은 큰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정원사는 이 말이 귀에 솔깃한 모양이었습니다. 도끼를 땅에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싫은 나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 이 늙은 배나무가 그동안 나를 위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든. 그리고 새들이 내 아내를 위해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준 일만 해도 고맙게 생각했지. 어쨌든 꿀벌들이 큰돈을 벌 수 있게 해 준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이 정원에 더 많은 꽃을 심고 가꾸겠어."

정원사는 늙은 배나무에게도 한라디 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했으니 여생을 편안히 보내렴."

그리고는 즐거운 마음으로 정원에서 나갔습니다. 